

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, 장애인 영화 관람 지원 '스크린 나들이' 참여

[박정호]

300여 명과 함께 문화 나눔으로 지역 ESG 실천 강화

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는 지난 12일 파주시 문산읍 CGV에서 열린 '스크린 나들이' 행사에 파주시역 장애인, 자원봉사자, 쌀전업농연합회 회원, 공사 직원 등 300여 명과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.



▲ 사진제공=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

'스크린 나들이'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한국쌀전업농파주시연합회가 후원하는 복지 행사로, 장애인의 문화·여가생활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를 비롯해 농협,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기관들도 매년 함께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포용적 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.

올해 행사에서는 파주시 전역에서 온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영화 하트맨을 함께 관람했으며, 최유각 파주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.

전홍성 파주시사장은 "뜻깊은 지역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"며 "앞으로도 파주시사는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,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"고 말했다.